

민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

김찬식
구로구청 기획경제국장
kimcs1@guro.go.kr

I. 추진배경

- 구로구는 서남권의 교통물류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공단지역에서 첨단 IT 디지털 밸리로 거듭나고 있어 주요 IT수출 핵심지역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 인하여 생동감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관내 지역에는 아직도 낙후된 주거 밀집지역이 있고 서민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통계청 2010년 9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전국 실업률은 3.9%에 비하여 구로구의 실업률은 4.5%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번 출범한 민선5기의 구청장 공약사업과 맞물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심한 바
-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관내 민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추진방향 및 목표

- 서남권 최대 규모의 대성디큐브 신축건물 종사자 인력의 50%를 구로구 주민을 고용하도록 업무제휴(총1,000명중 50%)
- 구로디지털단지 등 디지털 업체와 연계하여 관내 주민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기업』을 중점 발굴 육성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취업알선 홍보를 위한 일자리 원스톱 프로젝트 제공 및 지원체제 확립

○ 구로구 취업 및 실업현황

<표 1> 구로구 취업 및 실업현황

(단위: 명, %)

인구수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고
421,115	261,933 (62.2)	159,182 (37.8)	250,146 (95.5)	11,787 (4.5)	-

○ 구로구 연도별 목표

<표 2> 연도별 구로구 취업 목표

(단위: 명)

구 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계	18,640	4,350	3,810	3,620	3,510	3,360
공공분야	12,850	3,250	2,550	2,450	2,350	2,250
민간분야	5,790	1,100	1,260	1,170	1,160	1,110

III. 추진현황

○ 전담조직신설 및 기능강화를 위한 직제개편

- 먼저 일자리창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10년 8월 23일자로 기획경제국 소속의 일자리 지원과(3개 팀 신설)를 신설하였으며, 기획경제국을 주무국으로 격상하여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580명, 희망근로사업 800명 등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세대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및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통하여 1500여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 전문대졸이상의 청년실업자를 위해 민간위탁사업 등의 부서배치로 인턴 종류 후에도 취업을 연계하여 계속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무특성과 지원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계 고교 졸업자도 일부 채용함으로써 학력에 따른 소외계층발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 또한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Post-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자녀를 키우는 청·장년층 위주로 우선 고용하여 자전거 수리 센터나 도로환경개선사업 및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 도시 숲 조성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민간부문

- 공공분야의 일자리사업은 제한되어 있고 일시적인 사업이 많아 관내 기업과의 협조하에 다양하고 효과적인 일자리사업추진이 절실한 가운데 단일 건물로는 서남권 최대 건물인 신축 대성 디큐브 시티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고용인력 1000명중 50%인 500명을 구로구 주민으로 채용하도록 추진하였다. 대성 디큐브 시티는 과거 대성연탄부지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로서 A동 51층, B동 42층 (호텔 및 백화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신축건물이 조성될 경우 해당 건물에 종사할 인력 채용시에도 관내 주민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제휴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1] 디큐브 시티

-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 디지털 벨리에는 9,622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종사원은 123,228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신규 인력 채용 소요발생시 관내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디지털 관련 전문계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전체 고용 인력의 최대 5%범위인 6,000명이상을 관내 학생 및 주민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림 2] 디지털 벨리

- 또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아파트형공장 기업유치, 중소기업기금지원, 여성취업지원 등을 통하여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 향후 2014년까지 18,6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관내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IV. 문제점 및 대책

- 디지털 단지 내의 업체는 주로 IT전문업체가 많아 관내 주민 중에서 관련 전문기술을 소지한 경우가 적어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 관련 기술 소지자를 적극 발굴하여 취업연계 및 채용 후 업체 자체적인 기술 교육 실시 후 인력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의
 -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지방세감면 및 세부조사 면제 등)
- 관내 경제 컨셉의 변화에 따라 호텔 및 백화점 등의 서비스 분야 업체의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서비스 인력이 많이 필요함
 - 지역주민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평생 직업교육차원에서 친절서비스 등의 교육 실시로 서비스업체의 채용 경쟁력 강화

V. 기대효과

- 대성 디큐브 시티는 서남권 최대의 주상복합단지로서 주거와 쇼핑 및 문화공간 등이 동일 건물 내에 배치됨에 따라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시설 내에 종사원이 1,000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00명을 구로구 관내 주민에게 채용의 기회를 줄 경우 지역주민이 배척하는 기업이 아닌 지역주민과 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과 기업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 구로 디지털 밸리 내의 기업 및 기타 관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관내 취업대상주민에게 친절교육 등의 다양한 취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채용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